



투자는 신뢰가 결정

1. 투자는 신뢰가 결정

-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투자상품으로는 자금 유입
-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도 미국주식펀드(ETF포함)로는 자금 유입 이어짐
- 8월 들어, 국내인덱스섹터펀드와 국내액티브주식펀드로도 자금 유입

2. 국내주식 액티브유형 감소세 주춤

-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국내주식액티브 유형의 감소세는 약간 주춤
- 장기 성과, 투자 분야 등에 대해 신뢰를 주는 국내주식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여줌

3. 다양해지는 ETF

- 우리나라 ETF는 시장 규모와 다양성이 모두 확대
- 2019년말 51.7조원이었던 ETF순자산 규모는 2021년 7월 59.8조원으로 증가. 같은 기간 해외ETF 비중은 7.2%에서 18.4%로 크게 증가
- 금융상품의 신뢰 회복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던 국내주식펀드(ETF포함)를 투자자들의 곁에 되돌아오게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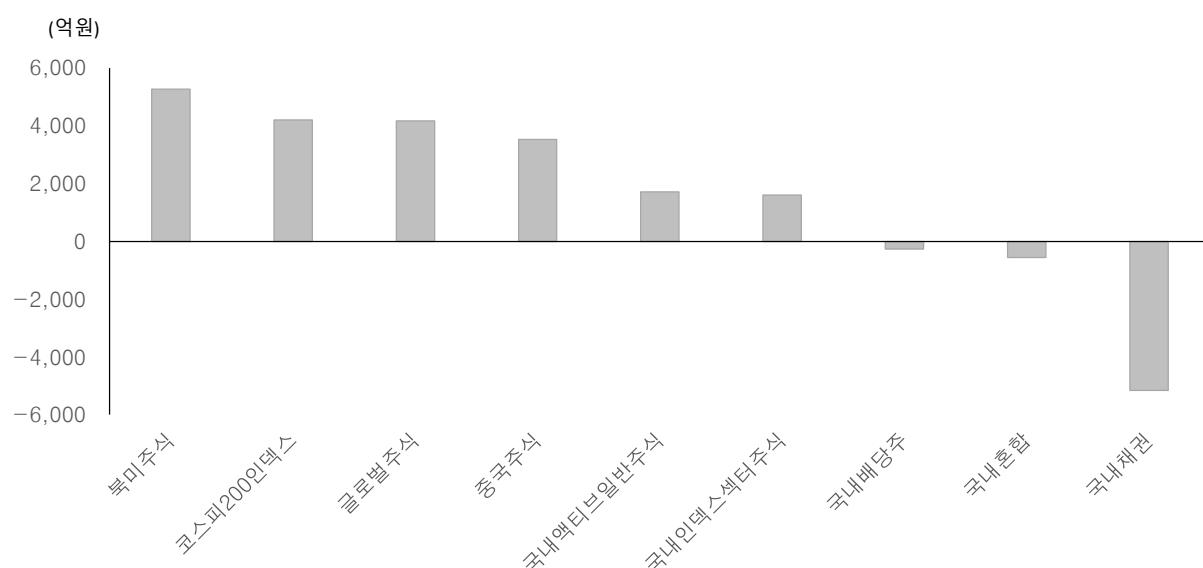
1. 투자는 신뢰가 좌우

8월 국내외 주식 시장은 테이퍼링과 텔타변이 등으로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진 시간이었으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투자상품으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달간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도 장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쌓인 미국주식펀드(ETF포함)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주식펀드는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작년부터 미국주식펀드 투자가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전기차, 2차전지, 언택트 관련 기업들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ESG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런 투자 트렌드는 환매가 이어지는 국내주식펀드에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8월 들어, 국내인덱스섹터펀드와 국내액티브주식펀드로도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ESG, 기술주, 모빌리티 등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펀드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수 레벨이 높아도 투자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차트1] 8월 북미주식, 코스피200, 글로벌 주식 유형의 설정액 크게 순증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9월 1일 영업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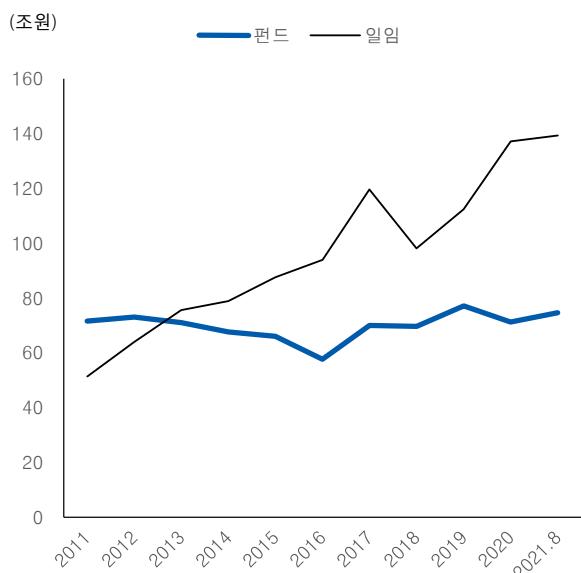
2. 국내주식 액티브유형 감소세 주춤

국내주식펀드(ETF포함)의 순자산 규모는 74.7조원으로 2020년말 71.2조원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8개월 동안 국내주식펀드(ETF포함)에서는 2조 2,729억원이 빠져나갔으며, 8월에는 1조 8,611억원이 순유입되었다. 국내주식 투자일임의 순자산은 139.3조원으로 작년 말 137.2조원보다 약간 늘었다. 코스피지수가 3,000pt를 넘어서면서, 기관투자자들도 이익실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국내주식액티브 유형의 감소세는 약간 주춤해졌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과 함께, 테마펀드·ESG펀드 등으로 자금 유입이 재개된 것이 순자산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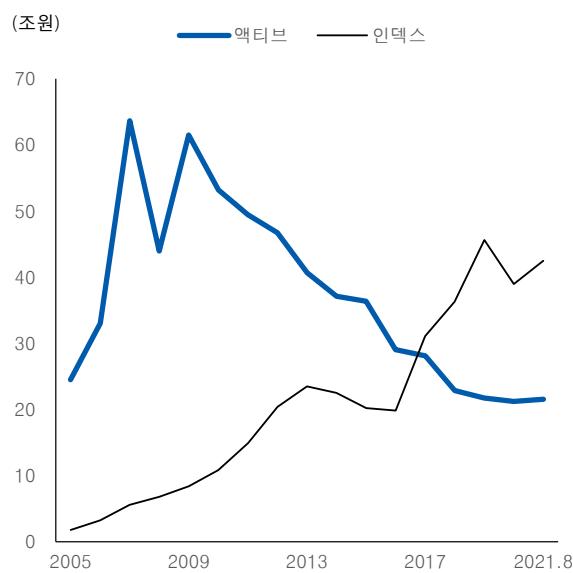
작년 초 본격화된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작년 4분기부터 해외주식펀드로의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장기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국내주식펀드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 성과, 투자 분야 등에 대해 신뢰를 주는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차트2] 국내주식 펀드 순자산규모는 75조원, 투자일임 순자산규모는 139조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국내주식 액티브 유형 감소세 주춤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3. 다양해지는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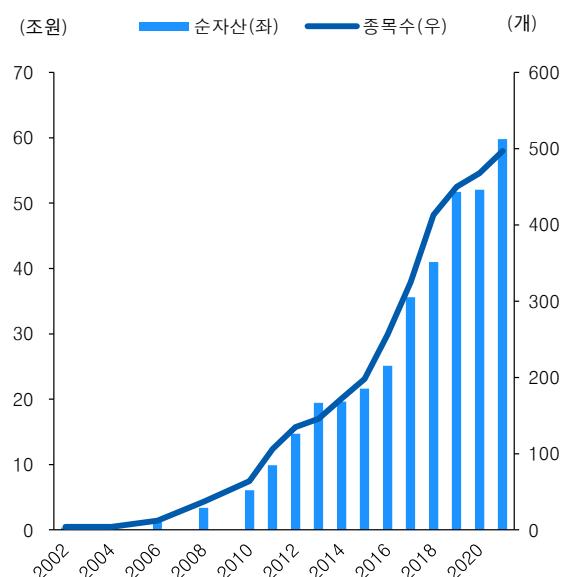
우리나라 ETF는 시장 규모와 다양성이 모두 확대되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말 51.7조원이었던 ETF순자산 규모는 2021년 7월 59.8조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ETF 종목수는 450종목에서 497종목으로 늘어났다.

2021년 7월 해외ETF의 비중은 18.4%로 2019년말의 7.2%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ETF의 비중은 69.0%에서 51.7%로 낮아졌다. ETF를 통해서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가 넓어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내주식 유형 중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액티브ETF가 많아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시장 전체보다는 특정 분야 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ETF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상품의 신뢰 회복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던 국내주식펀드(ETF 포함)를 투자자들의 곁에 되돌아오게 하고 있다.

[챠트4] 우리나라 ETF 규모는 60조원



[챠트5] 우리나라 ETF 중 국내주식 비중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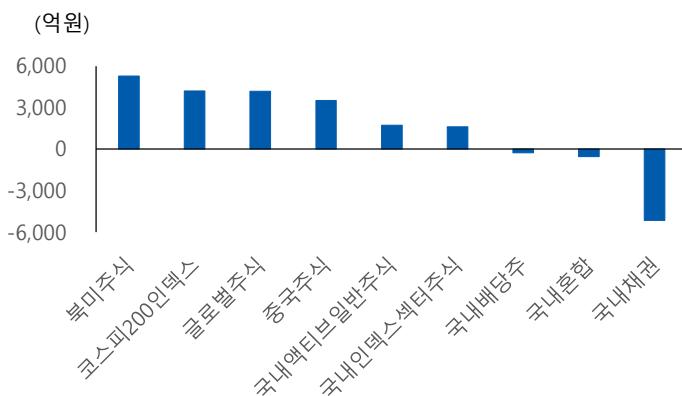


자료: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7월

자료: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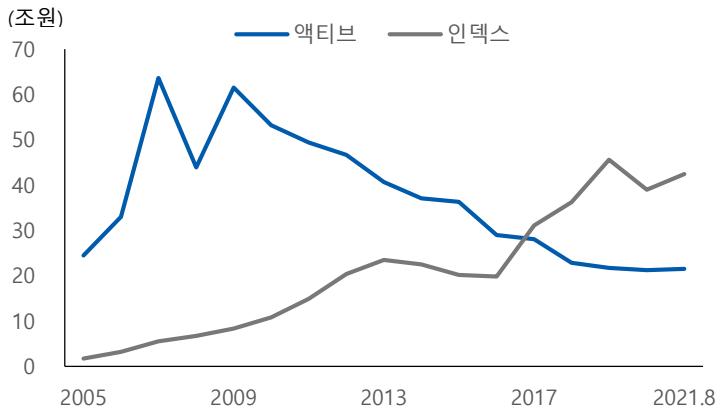
Key Chart

8월 북미주식, 코스피200, 글로벌
주식 유형의 설정액 크게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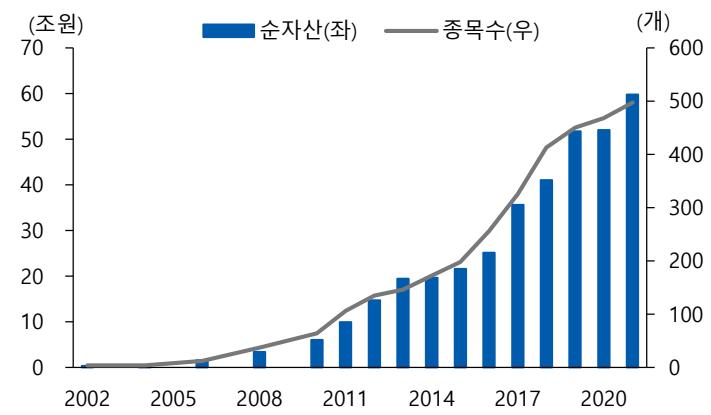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주식 액티브 유형 감소세 주
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우리나라 ETF 규모는 60조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